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고용 한파 심화

지난해 4분기 신규채용 12만2000명 감소

6개월 사이 채용 계획 인원도 지속 줄어

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채용이 7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채용 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안정 등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고용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채

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감소 규모는 12만2000명에 달했다. 또한 기업이 향후 6개월 사이에 채용을 계획하는 인원(채용 계획 인원) 역시 2023년 이후 감소세다. 특히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대졸자(19만5000명) 중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3만6000명)보다 시험, 자격증, 학원 통학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4만9000명)가 더 많았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규모는 137만3000명에 달해 2023년보다 8.4%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반면 초단시

간 일자리는 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40만명을 넘어섰다. 채용 시장 한파로 안정적 일자리 대신 초단시간 일자리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고용 서비스 및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

광주상의, 수출기업 대상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광주상공회의소 산하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김용욱 원산지관리사가 강사로 나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및 사용 전 준비사항, 기초데이터 이해와 작성, 기초데이터 업로드 및 오류수정,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빙서류 생성 등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신청 및 갱신 시 필요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승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6월 2일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285만명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간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신고 종료일인 6월2일에는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간 24시간 운영한다. 납부한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아, 신흥시장서 두자릿수 성장...‘시로스·타스만’ 뜬다

인도·아프리카·중동 1분기 판매량 급증 15%~25% 등 두 자릿수 증가율 달성



1월 16일(현지시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위치한 기아 인도 공장에서 시로스 양산 기념식을 열고 본격 양산에 나섰다. /기아 제공

기아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두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달성하며 성장하고 있다. 신흥시장에 최적화한 맞춤형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아가 올 초 세계 최초로 인도에 선보인 소형 스포츠실용차(SUV) 시로스를 시작으로 첫 픽업트럭 타스만을 신흥시장에 출시할 계획인 만큼, 판매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1분기 인도 판매량(도매 판매 기준)은 7만 6000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의 1분기 아프리카·중동 판매량은 6만대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25.5% 급증한 수치다. 기아가 진출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달성한 곳은 인도와 아프리카·중동이 유일하다. 그만큼 신흥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아의 신흥시장 판매량 증가는 현지 맞춤형 신차가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아가 올해 1월 인도 시장에 출시한 시로스는 1분기에만 1만

5986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아는 시로스를 인도 맞춤형 신차로 개발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를 통해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시로스를 출시했다. 시로스는 다양한 첨단 사양과 대담한 디자인, 편안한 실내 공간 등의 상품성을 갖췄음에도 시작 가격은 89만9000루피(약 150만원)로 저렴한 편이다. 아프리카·중동 시장에선 기아 판 SUV 모델인 준중형 SUV 스포티지와 중형 SUV 쏘렌토가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스포티지와 쏘렌토는 1분기에만 아프리카·중동에서 약 1만7000대의 판매량을 보이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기아는 인도 시장에 출시한 시로스를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등 또 다른 신흥시장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흥행 중인 타스만도 아프리카·중동에서 출시한다. 이를 통해 신흥시장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은 픽업트럭 붐모지로 불리는 국내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2월 국내 출시 이후 누적 계약 대수 5000대를 넘는 상태다. 출시 2개월 만에 지난해 픽업트럭 국내 판매량(1만3475대)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5월 황금연휴 전국 15개 공항에 280만명 몰린다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 140만명 전망

5월 황금연휴 김포와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140만명으로 예상되면서, 이 기간 인천공항까지 전국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288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연세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연휴는 1일 근로자의날과 주말(3~4일),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5일), 대체휴일(6일)까지 최대 일주

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 기간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총 항공편수는 8043편으로 이용객은 140만명(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은 김포공항 1일,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2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은 김포공항 4일과 5일, 김해공항 3일, 제주공항은 2일에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해외 스타트업 모집

모집 규모 80팀으로 확대·참여조건 완화...상금 최대 1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20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할 해외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된 대표적인 인바운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선정되면,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법인설립 등 한

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컴업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동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모집 규모를 기존 40팀에서 80팀으로 확대한다. 각국 대사관 및 K-스카우터를 통해 추천을 받는 등 발굴 경로를 다양화했다. K-스카우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는 기관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대표자 외에 소속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컨설팅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외 스타트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고, 한국 시장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수립, 대·중견기업 등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투자유치 설명회 등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권형안 기자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접수

내달 2일부터...‘200만번째 도약이 찾기’ 이벤트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5월 가입 신청을 받는다. 서금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5월 운영 일정을 공개했다. 청년의 성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 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할 효과를 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이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누적 계좌개설 인원 200만명 달성을 앞두고 ‘200만번째 도약이 찾기·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200만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청년도약계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모티콘 16종을 3만4000명에 게 무료 배포하는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한다. /뉴스

일본산 가공품서도 ‘방사성 물질’

땅콩·견과류 가공품 ‘쿠리킨톤’서 세슘 검출

일본산 땅콩·견과류 가공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8~24일 일본산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땅콩·견과류 가공품인 ‘쿠리킨톤’에서 1Bq/kg당 베크렐·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40kg이었다. 쿠리킨톤은 밤에 설탕을 더해 만든 일본식 밥만주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Bq/kg으로,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거나 제품을 반송·폐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쿠리킨톤 수입업체 역시 세슘 검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입 절차를 중단하고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일본산 캔디류, 쌀겨, 곤약 제품과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멕시코산 원료 등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돼, 해당 업체들이 제품 수입을 자진 취소한 바 있다.

작년 장애인고용률 3.21%...29만8654명

중증장애 35.8%·여성 28.7%...민간기업 증가세 견인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2023년) 대비 0.04%포인트(p) 상승한 평균 3.2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7331명 늘어난 29만8654명이었다. 전체 평균 고용률은 3.21%로, 2023년과 비교해 0.04%p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소다.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5.8%, 28.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민간부분의 고용인원은 22만2109명으로, 전년 대비 0.04%p 늘어난 3.03%였다.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광양만권경자청, 日 나고야 기업과 협약

투자설명회·투자관심기업 3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 나고야에서 지역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관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자청은 나고야지역의 잠재투자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 및 정주 여건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일 기업간 사업협력 및 협력사업 발굴, 한일 양국 제조기업과 협력 거점 조성 검토, 광양만권 내 투자 검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O사, Y사, L사 등 3개사와 체결했다. /광양·조순익 기자